

문화적 성향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관련성

: 민화작품의 특성 및 교육적 시사점*

Relationships between Cultural Disposition and the Motivation of Folk Paintings
: Educational Implications and Implication of Folk Paintings*

소은혜** · 나영***

초 록

본 연구는 사회후생에 기여하는 문화예술 분야 중 민화전시 관람동기를 통해 교육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문화예술은 사회후생에 공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학 분야에서 예술의 효과 및 컨텐츠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실무교육적 시사점도 한계적으로 제안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민화작품의 교육적 특성을 얼마나 고려하는지 살펴보았다. 나아가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관람객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전시시설에 따라 작품관람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지 로짓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문화적 성향에 따라 민화작품 관람 동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화작품 관람 동기는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전시시설을 고려하는 동기가 크다면 작품을 관람하려는 동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경영 분야에서 작품의 의미를 분석하고, 교육적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는데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수평적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진 관람객의 경우 작품의 의미를 고려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민화작품을 관람하려 오는 관람객 개인의 문화적 성향과 인구통계적 특성을 파악하여 민화작품과 연계된 교육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그러나 전시기획자가 관람객에게 시설관람 동기를 제공한다면 오히려 순수한 작품관람 동기가 감소하기에 구체적인 대안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시사점에도 본 연구는 교육적 시사점을 정의하는데 작품의 특성 및 전시시설로 제안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전시의 실무교육적 부분을 정의할 때 보다 다양한 전시시설 및 성격에 맞게 포괄적으로 재구성 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문화적 성향, 민화작품, 관람동기, 교육적 시사점

[투고일: 2021. 08.20, 심사(수정)확정일: 2021. 10.17, 게재확정일: 2021.10.26]

* 본 연구는 주저자의 학위논문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전체적으로 수정·보완한 논문입니다.

** 주저자, 한국영상대학교 문화이벤트연출과 겸임교수, e-mail: sweety1045@naver.com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mail: nayoung@cau.ac.kr

I. 서론

문화체육관광부(2017)에 따르면, 문화예술(음악, 미술, 문학 등)은 그 자체로 사회후생 증진에 기여하며, 대중문화와 미디어, 제조업,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다. 문화예술이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문화예술 활동은 대부분 영화 관람에 치우쳐 있으며, 영화 이외의 관람활동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7)에 따르면 문화예술 교육산업에서 내용(Content),이 알차야 할 뿐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조예진 (2015)은 문화예술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요인들의 인과관계 검증 뿐 아니라, 문화예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향수는 문화적 성향을 고려하여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분석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용관·김혜인, 2015; 이은우, 2016), 이를 통해 관람객의 행동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Grappi & Montanari, 2011). 하지만 경영학 분야에서 관람객의 행동의도와 미술품의 특성 간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김두이·김상훈, 2014), 문화예술 관람객의 행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다양한 방향으로 제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문화예술활동에 매우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홍윤미 등).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람객의 행동의도와 미술품의 내용과 교육 프로그램, 교육시설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관람객의 교육동기 및 시설의 중요도를 분석한다. 문화예술 Contents는 예술경영 분야에서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관람객의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를 분석한다. 또한 관람객은 전시시설의 접근성을 통해 관람동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2016년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서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불편함이 문화생활을 향유하는데 어려움을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화작품의 교육적 특성과 전시시설의 특성에 따른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관람객의 민화작품 관람동기를 파악하고 실무 교육적으로 민화전시 관람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여 민화작품의 교육적 요인과 민화전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는 관람객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1.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대한 선행연구

민화작품을 관람할 때, 관람객은 교육적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적 동기는 민화작품의 특성 중 학문적 특성, 작품의 미술사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민화전시를 관람하러 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17)에 따르면, 문화예술 관람시 31.5%의 관람객이 문화예술의 내용 및 수준을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민화박물관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관람객을 유인하고 있다. 정선희 (2016)는 민화는 조선시대 대중미술로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작품의 특성은 공연예술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검증되었고, 신형덕 등 (2005)에 따르면 미술 분야 전문가들이 정의한 작품성, 독창성, 주제 및 소재, 스타일, 제작기법의 차원은 미술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며, 이러한 평가요인으로 예술작품의 특성을 수량화 할 수 있으며, 작품의 예술성은 관람객의 행동의도나 관람객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방수아·김소영 (2012)은 실버소비자 공연 관람요인은 소비자의 경험과 공연 관람행동, 공연의 특성 등으로 정의하였다. 김선미 등(2011), 조예진(2015)은 문화공연의 관람요인은 배우 및 작품과 같은 공연예술의 내용적인 측면으로 연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김선미 등(2011)의 연구에서는 연극에서 작품은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으로서 작품의 의미와 특성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관광분야에서는 Sirgy & Su (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환경적 특성을 마케팅 4P요인 중 Product로 정의하였고 이영두 (2003)는 4P의 구성요소 중 Product (Contents)는 박물관 (미술관)에 있는 미술품이라고 정의하였다. 마케팅 관점으로 볼 때 Product는 Contents로 정의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Product를 박물관,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미술작품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 작품의 특성 및 미술사조를 통한 교육의 중요성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민화전시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전시 작품의 미술사적 요소와 관람객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작품의 예술적 특성은 관람객에게 하나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고, 관람객의 행동에 중요한 요소이다.(김두이·김상훈, 2014). 민화작품속에는 다양한 미술사조가 있기 때문에 교육적 요소로도 활용한다. Fefer et al.(2021)은 소비자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주변 환경등에 의한 자극으로 얻는 경험은 경영학적 관점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자극을 주는 요인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Grappi & Montanari (2011)는 미술품의 특성, 즉 박물관의 Contents는 관람객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줄 것이며, 교육적 요인이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품의 특성을 관람동기로 정의하고, 작품의 특성과 민화의 교육적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교육적 요인이 반영되어 있는 민화작품의 특성을 민화전시 관람동기로 정의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민화의 특성은 전문가 의견에 따라 정량적인 항목으로 변환시키고자 한다. 민화의 특성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정성적인 논문에 그치고 있다. 반면, 정성적인 특성을 정량적인 특성으로 변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민화작품 관람동기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문문항을 도출하였다. 민화작품 관람동기 설문 측정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그 측정항목을 정의하고 전문가에게 폐쇄적 설문으로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2. 개인의 문화적 성향 및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가. 개인의 문화적 성향

문화적 성향은 그 사회 내에서 공통적 유형의 행동을 일으키는 가치나 규범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효정 등, 2009). 문화적 성향의 측면에서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다양한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문화적 성향은 수직, 수평 척도로 세분화되었으며, 표정민(2014)은 이를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로 세분화 할 수 있으며, 문화적 성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

문화적 성향의 개념은 하나의 문화권에 살고있는 구성원을 다른 집단의 구성원과 구분하는 것이다. 또한 동일 문화권 내에서 개인의 문화적 성향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로 나뉘어진다(임영규, 2009; Schwartz, 1990). Markus & Hamedani (2007)는 개인의 행동은 개인이 속한 문화와 관련지어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Singelis et al. (1995)에 따르면, 이는 문화적 성향이라는 용어로 정의할 수 있다. 표정민·최인수(2015)는 한국인들이 가진 문화적 성향 요인을 한국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 하였으며, 창의성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현숙 등 (2013)은 문화적 성향은 불법다운로드 의도의 크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주미정·이재식 (2013)에 따르면, 문화적 성향에 따라 개인의 정보처리 과정, 즉 똑같은 정보를 제공해 주더라도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통칭하는 의미를 문화적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같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두 변수로 세분화 하여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민화작품 관람동기와 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1) Singelis et al.(1995), Triandis et al.(1990)등이 정의한 문화적 성향은 각각 수평,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 수직적 개인주의로 세분화 되었다. 하지만 문화적 성향은 시간의 의미에 따라 개인의 문화적 성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재구성되고 있다(오현숙 등, 2013). 이에 개인의 문화적 성향을 이인성 등(2009), 표정민·최인수(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한국인의 문화적 성향 척도를 측정하였다.

나. 개인의 문화적 성향: 집단주의적 성향

주미정·이재식 (2010)의 연구에서는 문화적 성향은 개인의 태도, 규범, 가치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적 성향 중 집단주의적 성향은 개인의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성 등(2012)에 따르면 문화적 성향은 국가별 차이 뿐 아니라, 개개인의 선택에도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며, Choi et al.(2006)은 문화적 성향 중 집단주의적 성향에 따른 특정 기기나 온라인 서비스 요인은 소비자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문화적 성향 중 집단주의적 성향은 특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응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맞게 변수가 재구성되고 있다. 이유경 (2011)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문화적 성향 중 집단주의적 성향은 소비자의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오현숙 등(2013)은 Cahoon et al. (1996)이 주장한 집단주의 문화권인 아시아권에 있는 개인의 문화적 성향을 비교하여 집단주의적 성향이 불법 다운로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표정민·최인수 (2015)의 연구에서는 Singles et al. (1995)이 제시한 문화적 성향의 네 가지 요인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을 기반으로 한국인들이 가진 문화적 성향이 무엇인지 정의하였다. 특히, 집단주의적 성향을 수평적 집단주의라고 하였다. 요약하면, 개인의 문화적 성향 중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진 관람객은 집단과 본인을 동일시하며, 여전히 전통적인 유교 사상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의적 성향은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한다.

다. 개인의 문화적 성향: 개인주의적 성향

표정민 (2014)은 개인주의적 성향에 따라 개인의 행동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며, 문화적 성향 중 개인주의를 각각 독특성과 독립적인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시에 문화적 성향은 다른 변수와의 관련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개인의 행동을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문화적 성향 중 개인주의적 성향은 민화작품 관람동기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문화적 성향 중 개인주의적 성향이 전시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문화적 성향의 척도를 정의하였다. 문화적 성향 중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관람객은 타인보다는 자신의 목표를 우선시 하며, 스스로 집단과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관람객이라고 정의한다. 선행연구에 따른 개인 및 국가별 문화적 성향을 정리하면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문화적 성향의 세부변수에 대한 설명

세부변수	이론적 배경
수평적 집단주의	집단주의적 성향은 내집단과 본인을 동일시 하려는 경향이 있음 (한규석·신수진, 1999; 표정민, 2014)
경쟁적 개인주의	타인의 목표보다는 자신의 목표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음 (Triandis 1996)
개성강조 개인주의	독특한 자신의 개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로 부터 독립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한상필 1990).
독립적 개인주의	스스로를 집단과 독립된 존재라고 여김

<표 2> 개인 및 국가별 문화적 성향

연구자	이론적 배경
Triandis (1988)	문화적 성향: 개인주의, 집단주의
Cahoon et al. (1996)	북미, 서유럽: 개인주의 문화 아시아, 남유럽: 집단주의 문화
Triandis (1996)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Triandis (2001)	문화적 성향: 상황에 따라 달라짐
Cohen et al. (2016)	과거의 문화적 성향: 집단주의, 개인주의성향 오늘날의 문화적 성향: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
이인성 등 (2009)	문화적 성향: 개인에게 집단주의, 개인주의 성향 적용
주미정·이재식 (2013)	개인의 문화적 성향: 동일문화권 내에서 집단주의, 개인주의로 세분화
오현숙 등(2013)	집단주의 국가: 개인주의 성향을 각각 수직, 수평적 개인주의로 세분화
표정민·최인수 (2015)	개인의 문화적 성향은 수평적 집단주의, 경쟁적 개성강조, 독립적 개인주의로 세분화
임영규 (2009)	집단주의적 성향: 유교적 성향이 남아있는 아시아권 국가 개인주의적 성향: 북미 유럽등의 국가
한동유 등 (2010)	개인주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속성을 설명 집단주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속성을 설명
이태숙·김철원 (2009)	개인주의/집단주의: 동일문화권에서 동일하게 나타남

고종식 · 강경목 (2018)	집단주의 문화: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함 개인주의 문화: 타인과의 갈등에 대해 크게 고려하지 않음
------------------	--

3. 인구통계적 특성

인구통계적 특성과 민화작품 관람동기와 관련하여, 김연선 (2017)에 따르면,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각각 성별, 결혼, 나이, 소득, 학력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관광객의 태도에 차이를 나타낸다. 유창 · 이태희 (2017)는 관광행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기존의 인구통계적 변

수와 심리적 변수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지은 · 김정아 (2017)에 따르면 인구통계적 특성은 방문특성에 차이가 나타나고, 인구통계적 특성은 레스토랑을 선택하는데 차이가 나타났다. Nafiseh Rezaei et al. (2017)은 전통 축제의 참여 동기는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고, Xiaoli et al.(2018)은 전시 관람 동기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관람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Huang (2017)은 동기부여 차원에서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영향력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동기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4. 민화전시 시설에 대한 선행연구

관광객의 관점에서 전시시설은 관광객을 유인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Bitner (1992)에 따르면 공간적 배치, 표지판, 상징물과 같은 주변 조건은 서비스 스키에프라고 정의한다. 전시의 환경은 매우 중요하며, 온도와 습도 조도, 동선, 편의성 등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Whitfield et al. (2014)은 전시 시설의 접근성은 작품관람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Jin & Weber (2016)에 따르면 전시 시설과 관련된 산업은 전시 기획자와 관광객의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있으며, Wang et al. (2014)은 전시 시설은 관광객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전시 시설은 전시를 관람하러 온 관광객에게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Deery & Jago, 2010). Ponsignon et al.(2020)에 따르면, 주변 환경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결정 짓게 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전시시설의 관람동기로서 관광객이 전시 관람을 하는 동안 전시시설에 따라 작품의 인식이 바뀔 수 있으며, 전시시설은 전시의 전반적인 인식과 크게 연결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적 요인인 전시시설은 관광객이 민화를 통해 교육 및 학습적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시시설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 가능하며, 전시를 관람하러 온 관광객의 시각을 통해 분

석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민화전시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분석하였다.

5. 로지스틱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민화작품 관람객의 동기를 예측하기 위해 로지스틱 모형(logit model)을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로지스틱 모형은 다수의 설명변수에 이항(또는 다항) 반응 변수의 변화를 오즈(odds)의 로그변환을 통해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기법이다(신희건과 남호수, 2019). 한상만·곽영식(1997)에 따르면, 로짓 모델은 소비자의 선택행위 및 다양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McFadden(1973)의 연구에서는 로짓모형은 모형의 단순성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행동의도의 예측력도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Odds(승산)를 수식으로 정리한 식은 다음과 같다.

$$\text{odds} = \frac{p_i}{1-p_i}$$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하나의 종속변수와 한 개 이상의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모델이다(김순귀 등, 2012). 이런 측면에서 로짓분석은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라는 요인이 크게 나타날수록 작품 관람동기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위에 제시된 수식을 통해 민화작품 관람객의 관람동기를 측정할 수 있으며, 개인의 문화적 성향에 따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람객의 선택속성을 파악하여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인구통계적 특성, 민화전시 시설에 따라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측한다. 나아가 향후 민화작품의 연구 필요성을 강조하며 나아가 관람객의 태도와 민화작품의 의미가 향후 민화전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6.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본 연구의 전시 관람동기는 크게 시설 관람동기와 작품 관람동기로 세분화 할 수 있다.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특정서비스 요인들의 인과관계 실증연구를 통해 향후 관람객 마케팅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소병희, 2008; 조예진, 2015). 선행연구에서는 관람객의 지적동기, 교류동기 등과 같이 다양한 동기와 관람객의 행동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작품 자체의 특성을 교육적 동기와 연결하여 관람동기로 정의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민화작품을 관람하려는 관람객의 문화예술 관람동기 중 민화작품의 특성 및 미술사조를 통한 교육적 요인을 민화작품 관람동기로 정의하고 민화작품 관람객의 동기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무적으로 요인을 파악

하여 향후 민화전시 관람객 유입 방안을 제안하였으나,²⁾ 또한 민화작품의 미술사조 및 민화작품의 특성이 민화작품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³⁾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Markus & Hamedani (2007)는 개인 행동의 이해는 문화적 성향과 연결할 수 있으며, 장문정·우형진 (2010)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변인의 파악은 특정동기에 나타나는 매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라고 주장하였다. 즉, 문화적 성향은 집단 내 개인의 태도와 심리적 변인, 규범을 파악할 수 있으며, 관람객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적 성향과 다양한 동기요인에 따른 개인의 행동 분석이 연구되고 있지만 민화의 교육적 특성을 반영한 작품관람 동기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라는 심리적 매커니즘에 따라 작품관람 동기의 크기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때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는 민화작품이 교육적으로 전달하는 요인으로 측정되었다.

둘째,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민화전시 시설에 따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전시시설에 대한 선행연구로 Wang et al.(2014)에 따르면, 전시시설은 관람객의 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화전시장의 개별적 요인과 민화작품의 미술사조 간의 관계를 동시에 살펴보았을 때 관람객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작품관람 동기에 대한 학문적 및 교육적으로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Ⅲ. 가설전개

1. [가설 1]: 개인의 문화적 성향과 민화작품 관람동기

가. 수평적 집단주의와 민화작품 관람동기

문화적 성향은 크게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나눌 수 있다 (Hofstede, 1980a; 1991b).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진 개인은 특정행동을 하는 내집단의 특성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집단의 범주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이수인, 2010). 특히, 수평적 집단주의는 자신의 자아를 내집단의 한 양상으로 여기고 있으며, 집단주의적 성향은 내집단과 본인을 동일시하려 하므로 집단 간 영향력은 문화적 성향과 행동

2)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문화적 성향에 따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문화적 성향을 통해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확률을 파악함으로써 민화작품 관람동기 심리적 요인을 측정하여 관람객을 유인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3) 민화작품을 관람하러 온 관람객의 심리는 Contents(작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의도에 차이가 난다 (한규석·신수진, 1999; 표정민, 2014). 아시아권의 문화적 성향은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여전히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한국사회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Cahoon et al. 1996; 이수인, 2010). 표정민(2014)은 국가 간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문화적 성향과 다양한 변수들과의 관련성이 검증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의 문화적 성향은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집단주의적 성향은 다양한 문화적 행동을 추측할 수 있으며, 관람객의 동기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수평적 집단주의가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가설1-1]을 전개하였다.

[가설 1-1] 수평적 집단주의적 성향이 클수록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나. 경쟁적 개인주의와 민화작품 관람동기

정미란·고재윤 (2010)은 Hofstede (1980)가 구분한 문화적 성향이 구매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경쟁적 지위의 강화는 소비자의 욕구와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경환 (2001)은 Hofstede (1980)가 주장한 경쟁적 우위는 기업경영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집단주의적 성향에 비해 경쟁적 개인주의는 개인의 목표가 우선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적 성향은 개인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Person, 1997; 김선우·김난도, 2010). 이와 같이 개인주의적 문화적 성향 중 경쟁적 특성은 관람객의 동기와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분화된 문화적 성향 중 경쟁적 개인주의의 성향이 특정 행동의도인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경쟁적 개인주의가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가설1-2]를 전개하였다.

[가설 1-2] 경쟁적 개인주의적 성향이 클수록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다. 개성강조 개인주의와 민화작품 관람동기

개인의 개성에 따라 문화예술 소비자의 행동의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술 산업 공급자들은 소비자들의 개인적 태도 변화에 따른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배수연, 2006; 김미경 등, 2016). 임영규 (2009)는 개인의 개성은 문화예술 관람객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박광희·최원경 (2001)에 따르면 모든 사회 구성원은 자신이 접하게 되는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이는 특정 동기로 이어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개성은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문화적 성향 중 개성의 의미는 소비자의 심리적 인과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개성강조 개인주의가 개인의 심리적 요인, 즉 민화작품 관람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개인주의가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가설1-3]을 전개하였다.

[가설 1-3] 개성강조 개인주의적 성향이 클수록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 개성강조 개인주의와 민화작품 관람동기

성제환 (2012)은 소비자의 독립적인 특성은 문화예술을 수요하고자 하는 동기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독립적 개인주의와 민화작품 관람동기는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개인주의가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가설1-4]을 전개하였다.

[가설 1-4] 독립적 개인주의적 성향이 클수록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2. [가설 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민화작품 관람동기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는 인구통계적 특성이다. 유창·이태희 (2017)는 인구통계적 변수와 심리적 변수간의 차이분석은 개인동기와 연결가능한 요소라고 하였다. 또한 김윤식·정승환 (2012)의 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정보 획득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류숙희 (2003)에 따르면 인구통계적 특성은 구매 동기에 차이를 줄 수 있다. 반면, 정지은·김정아(2017)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선택속성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각 동기 및 선택속성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강문실·김윤숙(2020)의 따라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가설 2]를 전개하였다.

[가설 2] 관람객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분석

- [가설 2-1]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통계학적특성(성별, 관람빈도, 학력,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 [가설 2-2] 경쟁적 개인주의 성향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통계학적특성(성별, 관람빈도, 학력,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 [가설 2-3] 개성강조 개인주의 성향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관람빈도, 학력,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 [가설 2-4] 독립적 개인주의 성향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통계학적특성(성별, 관람빈도, 학력,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3. [가설 3]: 민화전시 시설에 따른 민화작품 관람동기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민화전시시설이 있다. 곽은과 이병철 (2015)의 연구에서는 전시장 시설은 관람객의 심리적 만족감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김홍렬·한진영 (2012)의 연구에서도 전시관람 요인 중 외부선택요인 전시 환경요인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Whitfield et al. (2014)은 전시시설은 전시의 주요 상황 및 콘텐츠에 상호 영향을 미치며, Nelson (2013)에 따르면, 시설에 따라 콘텐츠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공연관람결정요인 중 시설 및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연구도 있다(서정화,2009; 김선미 등, 2011; 방수아·김소영, 2012; 조예진 2015).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예술분야의 시설이 관람객의 다양한 동기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문화예술시설에 따른 관람동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화전시시설에 따라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가설 3]을 전개하였다.

[가설 3] 전시시설 관람동기의 크기에 따른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작품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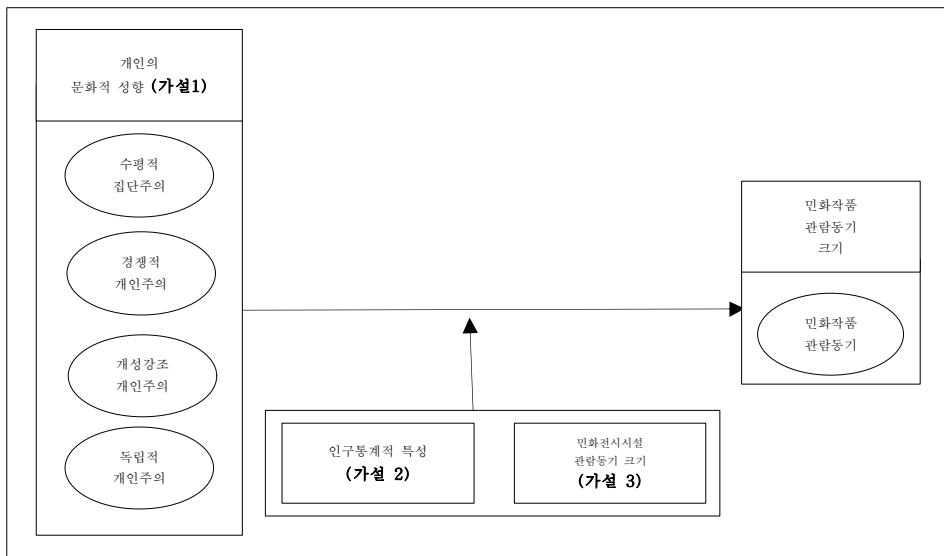
- [가설 3-1]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민화전시시설 관람동기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 [가설 3-2] 경쟁적 개인주의 성향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민화전시시설 관람동기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가설 3-3] 개성강조 개인주의 성향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민화전시시설 관람동기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가설 3-4] 독립적 개인주의 성향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민화전시시설 관람동기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4. 연구모형의 도해

본 연구에서는 [가설 1]을 통해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고자 한다. 나아가 [가설 2]와 [가설 3]은 인구통계적 특성과 민화전시 시설에 따라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얼마나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⁴⁾. [가설 1], [가설 2], [가설 3]의 기대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연구모형을 도해하였다. 가설 3개의 종속변수는 민화작품 관람동기라고 정의하였으며, 독립변수는 각각 수평적 집단주의(HC), 경쟁적 개인주의(CI), 개성강조 개인주의(PI), 독립적 개인주의(II)로 정의하였다. 이를 근거로 [가설 1], [가설 2], 그리고 [가설 3]을 통한 연구모형의 도해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의 도해

주: 1) 개인의 문화적 성향: 설문 문항 점수 기준, 인구통계적 특성: 중위수 기준 이상 1, 미만 0, 민화전시 시설 품질: 중위수 기준 이상 1, 그 외 0, 민화작품 관람동기: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4) 이에 대한 근거는 오현숙 등(2013)은 집단주의 국가 내에서 그 안에 속해있는 개인의 문화적 성향을 연구하였으며, 정지은·김정아 (2017)의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선택속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Whitfield et al. (2014)은 전시시설은 전시의 주요 상황 및 콘텐츠와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IV. 연구모형

1. 변수정의 및 측정

본 연구의 표본은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있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였다. 민화작품 관람동기와 관련된 연구는 정성적인 연구가 대부분인 관계로 정량적 항목으로 재구성하였고, 2단계를 거쳐 설문문항을 도출하였다. 1단계로,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민화의 특성을 정의한 문항을 5점 척도로 재구성하였으며, 설문에 적합한지 알아보고자 해당분야 종사자에게 조언을 구하였다⁵⁾. 2단계로 석사이상, 해당분야 종사 4년 이상인 전문가 (대학원 박사과정 포함) 5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요청하였으며, 폐쇄형 설문을 통해 각각의 점수를 측정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4.1점 이상인 설문 문항을 추려 총10개의 민화작품 관람동기 변수를 재구성하였다. 전문가 5인에게 회수된 설문지의 설문문항은 아래의 <표 3>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후 수정, 보완된 설문지는 전시관람 의도가 있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본 설문지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표 3> 민화전시 전문가 설문 폐쇄형 일부 문항

문항	설문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17	민화는 목적을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목적을 위한 수단이란 부귀다남이나 수복강녕, 입신양명 등 기복적임).	5	4	3	2	1

기타의견:

주: 1) 본 설문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한 폐쇄형 설문문항이다. 먼저 전시기획자 2인(근속 연수 4년이상 경력자)이 본 연구의 설문문항의 타당성에 대한 조언을 주었으며, 그 다음에는 해당분야 근속연수 4년이상, 석사학위소지자(미술, 예술학)이상의 전문가가 다시 설문문항에 대한 조언을 해 주었다.

앞서 도출한 민화작품의 예술성에 따른 관람동기, 전시장의 시설, 인구통계적 특성이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지순임 (2006), 조예진 (2015), 최인숙·남용현 (2010) 문승태·김선애 (2011), 홍미영 등 (2009), 조현우 (2011), 방수아·김소영 (2012), 신형덕 등 (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민화작품의 예술성과 연결한 설문문항을 설계하였다. Katsikari et al.(2020)에 따르면, 특정 동기는 다양한 방향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하였

5) 현직종사자 (전시기획자 2인)에게 설문문항에 대한 조언을 받은 결과, 의미를 추출하기 매우 어렵거나 설문문항 하나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경우, 민화작품 뿐 아니라 다른 작품에도 있을 수 있는 특성에 대한 설문 삭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받았다. 이 외에도 맞춤법 수정 및 의미에 대한 부연설명을 추가하여 설문지를 보완하였다.

다. 이를 총 40문항으로 민화작품의 특성에 맞추어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문항의 적합성을 전문가에게 검증받고, 민화의 교육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5점 리커드 척도 기준 (5점: 매우 그렇다~1점: 매우 아니다)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한 민화전시 관람동기에 대한 설문은 <표 4>와 같다 문화적 성향별로 민화전시 관람동기의 크기 및 인구통계적 특성과 민화전시 시설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이항로짓분석으로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표 4> 변수 정의 및 측정

변수	변수명	측정 문항	참고문헌
종속 변수	민화의 특성	민화는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지님	문화체육관광부 (2017);지순임 (2006); 최인숙·남용현 (2010); Sirgy & Su (2000)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게 폐쇄형 설문을 실행한 후 리커드 5점척도로 측정
		민화를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추정함	
		민화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자세나 태도를 반영	
		민화를 통해 사회구성원에 의해 습득되는 생활양식을 알	
		민화 속 정물이나 동물, 식물 등에 의미가 반영됨	
		민화는 대중성을 띠	
		민화는 도안화(형식화) 됨	
		민화는 단순화(평면화) 됨	
독립 변수	수평적 집단주의	민화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함	주미정·이재식 (2013); 표정민 (2014); Cohen A. B (2016); Singelis et al. (1995)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음
		내 즐거움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임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기분이 좋음	
		나의 동료가 잘 되는 것은 중요함	
		만일 동료가 상을 탄다면 자부심을 느낌	
		이웃들과 사소한 것을 나누는 것을 즐김	
		집단의 구성원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중요함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함	
		집단을 위해 나의 이익을 양보할 수 있음	
	개성강조 개인주의	내가 원하는 것을 희생해서라도 가족을 부양의무가 있음	
		친인척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대한 도와줌	
		내가 속한 집단의 결정사항을 존중해주는 것은 중요함	
	경쟁적 개인주의	나의 독특한 개성에 대해 만족함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사람임	
		나의 개성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함	
		경쟁은 삶에 있어서 중요함	
	독립적 개인주의	매사에 다른 사람들 보다 더 잘해야 함	
		경쟁사회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함	
경쟁 없이는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없음			
독립적 개인주의	나는 경쟁하는 상황을 즐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나를 믿음		
독립적 개인주의	타인과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은 중요함		

		나는 다른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나에게 의존한다	
상호 작용 및 통제 변수	성별 (Sex)	여성인 경우 0, 남성인 경우 1	유창·이태희 (2017); 정지은·김정아 (2017) Huang (2017)
	결혼 (Marriage)	미혼인 경우 0, 기혼인 경우 1	
	연령 (Age)	30대 미만 0, 30대 이상 1	
	소득 (Income)	101만원 미만 0, 그 이상은 1	
	학력 (Degree)	대졸이하0, 그 이상은 1	
	빈도 (Frequency)	빈도 0~2회인 경우 0, 그 이상은 1	
	거주 (Residence)	서울 이외지역 0, 서울지역 1	
상호 작용 변수	전시시설 관람동기 (Facility)	전시장은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함	Bitner (1992); Wang et al.(2014)
		교통이 편리해야 함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져야 함	
		전시장의 미관이 좋아야 함	
		전시장의 규모는 적절한 크기여야 함	
		전시 접근성은 중요함	
		전시 조명은 중요함	
		전시장 내 휴식공간이 있어야 함	
		전시 관람에 시야가 확보되어야 함	
		안내판 및 표지판이 잘 보여야 함	
실내 인테리어는 깔끔해야 함			

- 주: 1)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작품관람동기)를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각 점수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중위수 이상일 경우 [작품관람동기가 있음: 1], [중위수 미만일 경우 작품관람동기가 없음:0] 으로 정의하였다.
- 주: 2) 변수의 명칭은 표정민 (2014)의 문화적 성향에 대한 명칭을 인용하였다.
- 주: 3) 인구통계적 특성은 [가설 1]의 통제변수 및 [가설 2]의 상호작용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더미변수로 측정되었다.
- 주: 4) 설문은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있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리커트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2. [가설1]의 검정모형: 개인의 문화적 성향과 민화작품 관람동기

본 연구에서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개인의 문화적 성향에 따라 민화전시 관람요인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이에 각 문화적 성향에 따른 민화작품 관람동기 확률의 크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독립변수의 값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값이 자유롭게 변하는 것이 아닌 0 혹은 1로 나누어진다. 최열 등 (2014)에 따르면, 로짓모형에서 중요한 해석 방법은 오즈비 (Odds Ratio)를 이용한다. 이수인 (2010)에 따르면, 집단주의적 성향은 개인의 동기에도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며, Markus & Hamedani (2007)은 개인의 행동은 문화적 성향과 밀접하게 연

결되어 있다. 오현숙 등 (2013)은 아시아권 나라는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문화적 성향에 따라 행동의도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통제변수 중 위수의 기준은 320명 인원을 기준으로 중간값으로 중위수를 나누었다. 구체적으로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나누었으며, 기혼자는 1, 미혼자는 0으로 세분화 하였다. 연령 부분에서는 30대 이상은 1, 30대 미만은 0, 관람빈도에서는 연간 관람빈도가 3회 이상 나타난 경우에는 1, 그 미만이면 0으로 하였다. 학력은 대학원 재학 이상인 경우 1, 그 미만일 경우에는 0으로 간주하였다. 소득은 101만원 이상은 1, 그 미만은 0, 거주 지역은 서울지역 1, 그 외에는 0으로 정의하였다. 문화적 성향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문화적 성향에 따라 민화작품 관람의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수평적 집단주의(HC)적 성향이 민화작품 관람동기(Mot)가 있는지 검정하기 위한 [가설1-1]의 모형을 아래와 같이 전개하였다.

$$\text{Mot} = \beta_0 + \beta_1\text{HC} + \text{Controls} + \varepsilon \dots\dots\dots [\text{가설1-1}] \text{ 모형}$$

여기에서,

- Mot : 민화작품 관람동기 (Folk art Motivation)
: 작품 관람동기가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 HC : 수평적 집단주의 (Horizontal Collectivism)
- Controls : Sex : 성별 (Sex): 남성1, 여성0
Mar : 결혼여부 (Marriage): 기혼1, 미혼0
Age : 연령 (Age): 30대 이상1, 미만0
Fre : 관람빈도 (Frequency): 3회 이상1, 미만0
Deg : 학력 (Degree): 대학원 재학 이상1, 미만0
Inc : 소득 (Income): 101만원 이상1, 미만0
Res : 거주지역 (Residence): 서울지역1, 그 외0

경쟁적 개인주의는 Singelis et al.(1995)의 척도를 재구성하였으며, 이를 수평-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 문화적 성향 중 개인주의적 성향은 독립적 개인주의, 경쟁적 개인주의, 개성강조 개인주의로 세분화 한다(표정민, 2014). 즉, 문화적 성향은 다양한 변수로 정의될 수 있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개인주의적 성향을 크게 세분화 할 수 있다. 변수 세분화를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각각 독립적, 개성적, 경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변수들끼리 요인을 구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정민(2014)의 변수명을 참고하여 개성강조 개인주의, 경쟁적 개인주의, 독립적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세분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각각 독립적, 개성강조, 경쟁적 개인주의라고 세분화하였다(표정민, 2014; Cohen A.B et al., 2016; 주미정·이재식, 201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3개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민화관람동기 (Mot)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따라서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 1]을 검정하기 위해 [가설

1-2]모형, [가설1-3]모형, [가설1-4]모형을 각각 설정하였다. 통제변수에 대한 설명은 전술한 [가설1-1]의 설명과 동일하다.

$\text{Mot} = \beta_0 + \beta_1\text{CI} + \text{Controls} + \varepsilon \dots\dots\dots [\text{가설1-2}] \text{모형}$ $\text{Mot} = \beta_0 + \beta_1\text{PI} + \text{Controls} + \varepsilon \dots\dots\dots [\text{가설1-3}] \text{모형}$ $\text{Mot} = \beta_0 + \beta_1\text{II} + \text{Controls} + \varepsilon \dots\dots\dots [\text{가설1-4}] \text{모형}$
--

여기에서,

- Mot : 민화전시 관람동기 (Folk art Motivation)
 : 작품 관람동기가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 CI : 경쟁적 개인주의 (Competitive Individualism)
- PI : 개성강조 개인주의 (Personality Individualism)
- II : 독립적 개인주의 (Independent Individualism)
- Controls : [가설1-1]의 모형과 동일함

3. [가설2]의 검정모형: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민화작품 관람동기 차이분석

방수아 · 김소영 (2012)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해 공연 관람요인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파악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실버소비자의 관람요인에 영향력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Huang (2017)은 인구통계적 특성과 동기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즉, 인구통계적 변인은 특정 연령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그 동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Aldao & Mihalic(2020)은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성격의 세부분항을 각각 성별, 관람빈도, 학력, 소득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이를 연구모형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 (Sex, Fre, Deg, Inc)에 따른 차이로 정의하였다. 개인의 문화적 성향 중 집단주의 성향 (HC), 경쟁적 개인주의 성향 (CI), 개성강조 개인주의 성향 (PI), 독립적 개인주의 성향 (II)이 민화작품 관람동기 (Mot)에 미치는 영향에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위해 인구통계적 특성을 개인의 문화적 성향의 상호작용 변수로 정의하였다⁶⁾. 따라서 [가설 2]를 검정하기 위해 [가설2-1], [가설2-2], [가설2-3], [가설2-4]의 모형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text{Mot} = \beta_0 + \beta_1\text{HC} + \beta_2[(\text{Dsex} \times \text{HC}), (\text{Dfre} \times \text{HC}), (\text{Ddeg} \times \text{HC}), (\text{Dinc} \times \text{HC})] + \text{Controls} + \varepsilon \dots\dots\dots [\text{가설2-1}] \text{모형}$ $\text{Mot} = \beta_0 + \beta_1\text{CI} + \beta_2[(\text{Dsex} \times \text{CI}), (\text{Dfre} \times \text{CI}), (\text{Ddeg} \times \text{CI}), (\text{Dinc} \times \text{CI})] + \text{Controls} + \varepsilon \dots\dots\dots [\text{가설2-2}] \text{모형}$ $\text{Mot} = \beta_0 + \beta_1\text{PI} + \beta_2[(\text{Dsex} \times \text{PI}), (\text{Dfre} \times \text{PI}), (\text{Ddeg} \times \text{PI}), (\text{Dinc} \times \text{PI})] + \text{Controls} + \varepsilon \dots\dots\dots [\text{가설2-3}] \text{모형}$ $\text{Mot} = \beta_0 + \beta_1\text{II} + \beta_2[(\text{Dsex} \times \text{II}), (\text{Dfre} \times \text{II}), (\text{Ddeg} \times \text{II}), (\text{Dinc} \times \text{II})] + \text{Controls} + \varepsilon \dots\dots\dots [\text{가설2-4}] \text{모형}$

6) 개인의 문화적 성향에 따른 민화작품 관람동기는 관람객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가설 2]는 각각 (D_{sex}×HC), (D_{fre}×HC), (D_{deg}×HC), (D_{inc}×HC), (D_{sex}×CI), (D_{fre}×CI), (D_{deg}×CI), (D_{inc}×CI), (D_{sex}×PI), (D_{fre}×PI), (D_{deg}×PI), (D_{inc}×PI), (D_{sex}×II), (D_{fre}×II), (D_{deg}×II), (D_{inc}×II)의 상호작용에 대한 β값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 HC : 수평적 집단주의 (Horizontal Collectivism)
- CI : 경쟁적 개인주의 (Competitive Individualism)
- PI : 개성강조 개인주의 (Personality Individualism)
- II : 독립적 개인주의 (Independent Individualism)
- Dsex : 성별더미 (남성 1, 여성 0)
- Dire : 전시 관람 빈도 더미 (3회 이상, 그 외 0)
- Ddeg : 학력 더미 (대학원재학이상, 그 외 0)
- Dinc : 소득 더미 (101만원 이상, 그 외 0)
- Controls: Fac: 전시시설 품질 (중위수 기준 이상, 그 외0)
- Mar: 결혼여부 (기혼1, 미혼0)
- Age: 연령 (30대 이상, 미만0)
- Reg: 거주지역 (서울지역1, 그 외0)

4. [가설3]의 검정모형: 민화전시 시설에 따른 민화작품 관람동기

Jin & Weber (2016)에 따르면 전시 관람객이 인식하는 매력 중 전시시설의 특성이 있으며, 전시시설은 관람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시설의 특성 및 중요도에 따라 작품 관람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 Alcaraz et al. (2009)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박물관 경영은 박물관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연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전시시설에 따른 차이분석은 문화적 성향의 상호작용 변수 (Dfac×HC, Dfac×CI, Dfac×PI, Dfac×II)로 측정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민화전시 관람이 나타날 때 민화작품 관람객은 주변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3]을 검정하기 위해 세부모형인 [가설3-1], [가설3-2], [가설3-3], [가설3-4]모형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통제변수에 대한 설명은 전술한 [가설1-1]의 설명과 동일하다.

$$Mot = \beta_0 + \beta_1 HC + \beta_2 (D_{fac} \times HC) + Controls + \varepsilon \dots \dots \dots [가설3-1]모형$$

$$Mot = \beta_0 + \beta_1 CI + \beta_2 (D_{fac} \times CI) + Controls + \varepsilon \dots \dots \dots [가설3-2]모형$$

$$Mot = \beta_0 + \beta_1 PI + \beta_2 (D_{fac} \times PI) + Controls + \varepsilon \dots \dots \dots [가설3-3]모형$$

$$Mot = \beta_0 + \beta_1 II + \beta_2 (D_{fac} \times II) + Controls + \varepsilon \dots \dots \dots [가설3-4]모형$$

여기에서,

- HC : 수평적 집단주의 (Horizontal Collectivism)
- CI : 경쟁적 개인주의 (Competitive Individualism)
- PI : 개성강조 개인주의 (Personality Individualism)
- II : 독립적 개인주의 (Independent Individualism)
- Dfac : 전시 시설 (Facility): 중위수 이상 1, 중위수 미만 0
- Controls : [가설1-1]의 모형과 동일함

V. 실증분석결과

1.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서는 민화작품 관람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인구통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화의 의미는 40개 중 10개의 문항으로 도출되었다.⁷⁾ 그 후 민화작품 관람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무작위로 320여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조사는 2017년 11월 4일부터 약 1주간 32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구체적인 응답자의 특성은 <표 5>에 제시하였다.⁸⁾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특성을 기반으로 개인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을 실행한다(김세범 등, 2011) 이에 민화작품을 관람하고 나온 관람객이나 6개월 이내에 민화작품 관람 경험이 있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서울지역에서는 가회민화박물관, 영월지역에서는 조선민화박물관, 강진지역에서는 한국민화뮤지엄을 관람한 경험이 있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판단표본추출법을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표 5>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은 각각 156명 (48.8%), 164명 (51.3%)으로 나타났으며, 미혼자는 214명 (66.9%), 기혼자는 106명 (33.1%)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20대 186명 (58.1%), 30대 28명 (8.8%), 40대 23명 (7.2%), 50대 74명 (23.1%), 60대 이상은 9명(2.8%)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평균 전시관람횟수는 0~2번이 215명 (67.2%), 3~5번이 78명 (24.4%), 6~8번이 18명 (5.6%), 9번이상이 9명 (2.8%)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졸이하가 14명 (4.4%), 대학재학~대졸이 246명 (76.9%), 대학원 재학이 31명 (9.7%), 대학원 졸업이 29명 (9.7%)이며, 월 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135명 (42.2%), 101만원~300만원이 89명 (27.8%), 301만원~500만원이 44명 (13.8%), 501만원~700만원이 20명 (6.3%), 701만원 이상이 32명 (10.0%)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경기지역이 75명 (23.4%), 서울지역이 78명 (24.4%), 서울경기 이외 지역은 167명 (52.2%)로 나타났다.

7) 민화작품 관람동기 설문문항 10개를 도출한 기준은 전문가 5명 전체가 리커트 5점 척도 기준 48점이상을 준 경우, 민화작품의 특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나온 경우이다.

8)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결혼여부, 연령, 관람빈도, 최종학력, 소득수준, 거주지역으로 나누었으며, 전시관람빈도가 0~2회, 대학재학 및 졸업, 기혼, 연령이 20~30대인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5> 응답자의 특성

구분		인원	비율(%)	합계
성별	남성	156	48.8%	320
	여성	164	51.3%	
결혼여부	미혼	214	33.1%	320
	기혼	106	66.9%	
연령	20대	186	58.1%	320
	30대	28	8.8%	
	40대	23	7.2%	
	50대	74	23.1%	
	60대이상	9	2.8%	
전시관람빈도	0~2번	215	67.2%	320
	3~5번	78	24.4%	
	6~8번	18	5.6%	
	9번이상	9	2.8%	
최종 학력	고졸이하	14	4.4%	320
	대학재학~대졸	246	76.9%	
	대학원재학	31	9.7%	
	대학원졸업	29	9.1%	
소득수준	100만원이하	135	42.2%	320
	101~300만원	89	27.8%	
	301~500만원	44	13.8%	
	501~700만원	20	6.3%	
	701만원 이상	32	10.0%	
거주지역	경기	75	23.4%	320
	서울	78	24.4%	
	서울,경기 이외	167	52.2%	

주 1) 성별, 연령, 전시관람빈도, 최종학력, 소득수준에 따라 민화전시 관람동기에 차이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각 설문은 민화전시 관람의도가 있는 관람객을 기준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주 2) 최종 학력은 대학재학~대졸인 표본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대다수의 민화작품 관람객은 젊은 층이 민화작품을 관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민화의 특성 중 교육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Factor Analysis)은 여러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기초가 되어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변수의 개수보다 적은 수의 요인(Factor)으로 자료변동을 설명하는 기법이다(강병서 · 김계수, 2009). 이를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요인을 추출한 후 직각회전 (Varimax)방법을 통해 요인을 구성하였다. Varimax는 요인구조를 가장 명확하게 단순화시키면서 해석도 용이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된다(구동모, 2015). 통상적으로 SPSS를 통한 요인분석은 그 적재값이 0.5이상이면 아주 유의하며(원태연 · 정성원, 2010), SPSS를 통한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6>와 같이 나타났으며 그 값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신뢰도 분석을 통해 측정값의 분산을 나타냈다 신뢰성(Realibility)은 동일한 개념을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나타나는 측정값의 분산을 의미한다. 설문 의 내적일관성 (Internal Consistency Method)을 측정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계수 (Chronbach's alpha)값을 통해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알파계수가 0.6이상인 경우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 표정민 (2014)의 연구처럼 한국인의 문화적 성향을 탐색적 요인 분석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집단주의적 성향이 한 요인으로 묶이면서 수평적 집단주의라는 요인으로 재구성되었다. 경쟁적 개인주의는 5문항, 개성강조 개인주의와 독립적 개인주의는 각각 3문항으로 요인이 구성되었으며,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요인을 구성하였다. 각 요인점수는 .60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총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요인의 명칭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명명하였다. SPSS를 통한 요인분석 후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 값을 제시하였으며, Cronbach 값은 .60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구성하였다. 요인점수와 Cronbach 값은 아래의 <표 6>와 같다.

<표 6> 문화적 성향에 대한 요인분석

요인명	요인점수				kmo	Eigen Value
집단주의 α :.868	.789				.833	5.224
	.766					
	.760					
	.704					
	.703					
	.686					
	.620					
	.613					
	.595					
	.545					
경쟁적 개인주의 α :.775		.741			.833	3.182
		.716				
		.709				
		.687				
독립적 개인주의 α :.769			.866		.833	2.037
			.827			
			.590			
개성강조 개인주의 α :.794				.887	.833	1.392
				.863		
				.610		

주 1) 각 설문문항은 위의 <표 3>을 요인분석하여 추출된 4개의 독립변수이며, 4개의 요인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집단주의적 성향에서 1문항이 제거되었음.

주 2) Cronbach Alpha 값은, 0.6이상일 경우에 설문 문항에 신뢰도가 있는 것임.

주 3) 요인의 적재값이 0.5이상일 경우 그 값이 적절하다고 봄.<표 5>에서는 0.5이상으로 요인에 대한 문제가 없음.

주 :4) 표본 적합도에 대한 Kaiser-Meyer-Olkin 측도는 변수간 편상관계수가 작는지 여부를 결정함. 0.5이상인 경우 표본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함 (강병서·김계수, 2009).

3. [가설1]의 검정결과: 개인의 문화적 성향과 민화작품 관람동기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추출하기 위한 모형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는 $\chi^2=82.443$, $p=.000$ 으로, 로지스틱 회귀식이 종속변수를 설명할 수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이에 Hosmer와 Lemeshow 검정을 통해 카이제곱값과 유의수준을 보았으며, χ^2 값은 5.619, p value 값은 .690로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⁹⁾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검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수평적 집단주의적, 개성강조 개인주의적, 경쟁적 개인주의적 특성요인에서 민화작품 관람동기 크기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설1-1]의 중요 관심변수인 HC변수는 통계적으로 1%수준에서 유의한 정 (+)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수평적 집단주의적 성향이 증가할수록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p(B): 4.796, $p=.000$).¹⁰⁾ 따라서 [가설 1-1]은 지지되었으며, Markus & Hamedani (2007)가 주장한 바와 같이, 수평적 집단주의적 성향이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개인의 문화적 성향은 민화작품 관람동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평적 집단주의적 성향의 관람객은 작품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Markus & Kitayama, 1991). [가설 1-2]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인 경쟁적 개인주의적 성향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관계에서, 주요 관심변수인 경쟁적 개인주의적 성향 (CI)은 민화전시 관람동기에 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쟁적 개인주의적 성향이 증가할수록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1-2]는 지지되었으며, 이는 경쟁적 개인주의를 통해 매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려 함을 시사한다(Hofstede, 1980; 박경환, 2001). 즉, 경쟁적 개인주의를 통해 민화작품 관람동기를 이끌어 낸다면 보다 효율적인 박물관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설 1-3]의 주요 관심변수인 PI변수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값을 나타냈다 (Exp(B): 2.208, $p=.012$). 이는 개성강조 개인주의적 성향이 증가할수록 전시작품 관람동기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개개인의 개성에 따라서 민화

9) Hosmer-Lemeshow 적합도 지수는 전체 모형 적합도를 보는데 유용하며 그 변수가 연속형일 경우에는 유용하다 (강병서·김계수, 2009). 또한 Hosmer-Lemeshow값은 0.05보다 크게 나타나면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김순귀 등, 2012)

10) 이항로지스틱은 0과 1의 범위에서 나타난다. 즉, 1에 가까운 확률을 나타낼 때 Exp (B)으로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Exp (B)값은, 결과가 $x=0$ 에 해당하는 대상보다 $x=1$ 에 해당하는 대상에 얼마나 더 일어날 것인지를 의미한다. 즉, Exp (B)값에 따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대해 파악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분형인 종속변수 (0,1)가 1에 가까울수록 그 관람동기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작품 관람동기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민화작품이 개개인의 개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시말해,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와 연결될 수 있다. 즉, 동일한 개인주의적 성향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시사점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Triandis, 2001). 반면, [가설 1-4]의 주요 관심변수인 II 변수는 그 값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Exp(B): .683, p=.212). 따라서 [가설 1-4]는 기각되었다. 최인재 (2006)는 개인주의적 성향은 자신의 독특한 개성과 독립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개인의 문화적 성향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도 직결된다 (Fishbein et al. 2000). 이에 대한 [가설 1]의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가설1]의 검정결과

$$Mot = \beta_0 + \beta IHC + Controls + \varepsilon \dots\dots\dots [가설-1 모형]$$

$$Mot = \beta_0 + \beta CI + Controls + \varepsilon \dots\dots\dots [가설-2 모형]$$

$$Mot = \beta_0 + \beta PI + Controls + \varepsilon \dots\dots\dots [가설-3 모형]$$

$$Mot = \beta_0 + \beta III + Controls + \varepsilon \dots\dots\dots [가설-4 모형]$$

구분	B	S.E	Waid	p-value	Exp(B)	VIF
수평적 집단주의[가설 1-1]	1.568	.295	28.288	.000	4.796***	1.237
경쟁적 개인주의[가설 1-2]	.515	.189	7.467	.006	1.674***	1.152
개성강조 개인주의[가설 1-3]	.792	.314	6.365	.012	2.208**	2.903
독립적 개인주의[가설 1-4]	-.381	.306	1.556	.212	.683	2.968
성별	-.612	.291	4.417	.036	.542**	1.221
결혼	.184	.434	.181	.671	1.295	3.594
연령	-.827	.457	3.285	.070	.437	4.174
전시관람빈도	.258	.287	.809	.368	1.295	1.007
최종 학력	-.366	.338	1.169	.280	.694	1.090
월 평균 소득	.013	.346	.001	.969	1.013	2.087
거주지역	-.249	.280	.789	.374	.780	1.197

-2LL: 352.653 Cox와 Snell의 R-제곱: .227, Nagelkerke R-제곱: .306

- 주 1) ***,**는 각각 p-value 1%, 5%의 유의수준
- 주 2) 성별에 따라 5%의 유의수준으로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성별에 따른 개인의 문화적 성향과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대해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주 3) Exp (B)값은 독립변수 (x)가 1인 경우의 x=0에 대한 승산비의 값이다. 즉, [가설-1]에 대해 해석하면, 수평적 집단주의가 크게 나타날수록 민화작품 관람동기는 4.796배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 주 4) VIF값을 통해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다. VIF값이 10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VIF값이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 주 5) Nagelkerke R-제곱값은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0.306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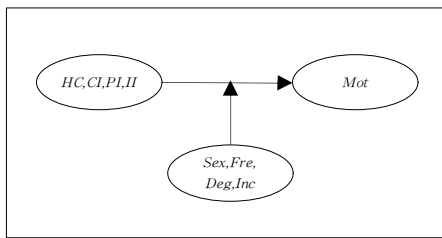
4. [가설2]의 검정결과: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민화작품 관람동기 차이분석

[가설 1]의 검정에서는 통제변수인 성별이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영향을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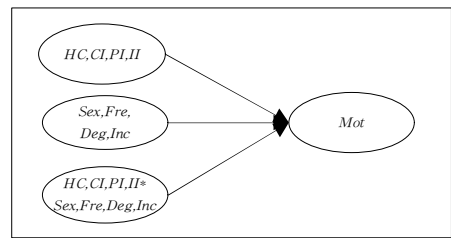
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지은·김정아(2017)과 같이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개인의 행동의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과 연결된다. Henry Assael(2005)은 소득, 연령, 학력 등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Baron & Kenny (1986)에 따르면 일관적이지 못한 결과를 산출할 때 조절변수를 통해 그 차이를 분석한다.11)11)

<표 8>은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관람객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한 [가설 2]의 검정결과이다. 수평적 집단주의(HC)가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는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가설 2-1]의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평적 집단주의(HC)적 성향과 성별(Sex)의 상호작용 효과(Dsex×HC)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평적 집단주의적 성향이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수평적 집단주의(HC)와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관람빈도(Fre)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요 관심변수인(Dfre×HC)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집단주의적 성향(HC)을 가진 관람객은 소득(Inc)에 따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차이가 있었으며,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소득이 일정 이상 되는 민화작품 관람객인 경우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평적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진 관람객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질수록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관람객은 수평적 집단주의적 성향을 나타내는 관람객의 경우 관람동기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화작품의 역할이 수평적 집단주의

11) 상호작용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예측변수인 개인의 문화적 성향과 준거변수인 민화작품 관람동기(Mot)의 관련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가설 2]의 개념적 검정모형#



[가설 2]의 통계적 검정모형#

주: 1) 개념적 검정모형은 개인의 문화적 성향(HC, CI, PI, II)이 민화작품 관람동기(Mot)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통계적 특성(Sex, Fre, Deg, Inc)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를 개념적으로 도식화 한 것이다.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득이 높은 관람객은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증가할수록,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설 2]의 검정결과와 민화작품관람동기가 소득에 따라 집단주의적 성향이 차이가 나타난다는 회귀선의 기울기(Beta)값은 0.183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의 해석은 Cohen et al. (2013)에 근거하여 상호작용항의 추가로 인해 발생하는 값이 0.183 만큼 증가하고, p-value가 0.05미만일 때 그 값이 유의하다. 소득에 따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경쟁적 개인주의적 성향은 0.272만큼 증가하고 개성 강조 개인주의는 소득에 따라 0.204만큼 증가하고 있으며, 독립적 개인주의 또한 소득이라는 상호작용항이 투입됨에 따라 0.199만큼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일정 이상의 소득을 가진 관람객에게서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성향을 가진 대학생 이하의 눈높이에 맞는 작품임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관람빈도(Fre)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적 개인주의에 따른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가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가설 2-2]의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 관심변수인 (Dsex×CI), (Dfre×CI), (Ddeg×CI)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는 경쟁적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관람객은 성별과 관람빈도, 그리고 학력에 관계없이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소득에 따라 경쟁적 개인주의가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2]는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Dinc×CI) 변수는 5% 수준에서 정(+)의 값이 나타났다. 이는 경쟁적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일정 이상의 소득을 지닌 관람객에게서는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특성 중 소득요인이 관람동기와 관련이 있다는 임영규(2009)의 연구와 일맥상통하게 나타났다.

[가설 2-3]은 [가설 2-2]와는 다르게 소득(inc), 관람빈도(fre), 학력(deg)에 따라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크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람빈도와 학력 그룹에서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음(-)의 차이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 이하의 관람객이 다양한 교육적 동기를 가지고 민화작품을 관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20대 이상의 설문응답자가 과반수 (58,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구통계적 특성 중 학력(deg)과 연결하면 대다수의 응답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재학중인 표본이 과반수로 나타나고 있다. 연간 전시 관람 빈도가 낮은 관람객의 경우,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음(-)의 차이를 나타낸 이유는 비교적 적게 관람한 관람객에게 민화작품의 다양한 사조를 통해 관람객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설 2-4]의 경우, 소득(Inc)이 일정 이상일수록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가설2-2]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경쟁적 개인주의와 독립적 개인주의가 개인의 문화적 성향 중 개인주의적 성향에서 세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8> [가설2]의 검정결과

$Mot = \beta_0 + \beta_1 HC + \beta_2 [(Dsex \times HC), (Dfre \times HC), (Ddeg \times HC), (Dinc \times HC)] + Controls + \varepsilon \dots\dots\dots (가설2-1의\ 모형)$					
$Mot = \beta_0 + \beta_1 CI + \beta_2 [(Dsex \times CI), (Dfre \times CI), (Ddeg \times CI), (Dinc \times CI)] + Controls + \varepsilon \dots\dots\dots (가설2-2의\ 모형)$					
$Mot = \beta_0 + \beta_1 PI + \beta_2 [(Dsex \times PI), (Dfre \times PI), (Ddeg \times PI), (Dinc \times PI)] + Controls + \varepsilon \dots\dots\dots (가설2-3의\ 모형)$					
$Mot = \beta_0 + \beta_1 II + \beta_2 [(Dsex \times II), (Dfre \times II), (Ddeg \times II), (Dinc \times II)] + Controls + \varepsilon \dots\dots\dots (가설2-4의\ 모형)$					
구분	B	S.E	Waid	p-value	Exp(B)

수평적 집단주의 [가설 2-1]	HC×Sex	-0.769	0.379	4.118	0.042	0.463**
	HC×Fre	0.389	0.387	1.009	0.315	1.475
	HC×Deg	-1.231	0.544	5.735	0.017	0.292**
	HC×Incc	0.183	0.067	7.557	0.006	1.201***
경쟁적 개인주의 [가설 2-2]	CI×Sex	0.306	0.294	1.078	0.299	1.357
	CI×Fre	-0.080	0.316	0.063	0.802	0.924
	CI×Deg	-0.044	0.387	0.013	0.909	0.957
	CI×Incc	0.272	0.087	9.900	0.002	1.323***
개성강조 개인주의 [가설 2-3]	PI×Sex	-0.102	0.316	0.104	0.747	0.903
	PI×Fre	-0.569	0.332	2.929	0.087	0.566*
	PI×Deg	-0.910	0.373	5.959	0.015	0.402**
	PI×Incc	0.204	0.071	8.339	0.004	1.226***
독립적 개인주의 [가설 2-4]	II×Sex	-0.240	0.329	0.530	0.467	0.787
	II×Fre	-0.376	0.347	1.174	0.278	0.686
	II×Deg	0.029	0.076	0.140	0.708	1.029
	II×Incc	0.199	0.071	7.967	0.005	1.207***
HC×Sexa (통제변수) [가설 2-1]	Fac	0.766	0.256	8.924	0.003	2.151***
	Mar	0.468	0.374	1.567	0.211	1.597
	Age	0.613	0.362	2.867	0.090	1.847*
	Reg	-0.028	0.176	0.025	0.873	0.972
HC×Fre (통제변수) [가설 2-1]	Fac	0.800	0.255	9.807	0.002	2.224***
	Mar	0.508	0.377	1.816	0.178	1.663
	Age	0.663	0.367	3.256	0.071	1.941*
	Reg	-0.411	0.306	1.800	0.180	0.663
HC×Deg (통제변수) [가설 2-1]	Fac	0.794	0.257	9.519	0.002	2.253***
	Mar	0.578	0.376	2.361	0.124	1.783
	Age	0.637	0.362	3.105	0.078	1.891*
	Reg	-0.367	0.311	1.425	0.233	0.693
HC×Inc (통제변수) [가설 2-1]	Fac	0.845	0.255	11.006	0.001	2.328***
	Mar	-0.012	0.494	0.001	0.981	0.988
	Age	0.209	0.183	1.308	0.253	1.232
	Reg	0.283	0.160	3.122	0.077	1.328*
CI×Sex (통제변수) [가설 2-2]	Fac	-0.370	0.272	1.845	0.174	0.691
	Mar	0.297	0.466	0.405	0.524	1.346
	Age	0.204	0.163	1.561	0.211	1.227
	Reg	0.263	0.154	2.922	0.087	1.301*
CI×Fre (통제변수) [가설 2-2]	Fac	0.853	0.253	11.391	0.001	2.347***
	Mar	0.560	0.377	2.207	0.137	1.750
	Age	0.596	0.312	2.709	0.100	1.815*
	Reg	0.398	0.304	1.715	0.190	0.672
CI×Deg (통제변수) [가설 2-2]	Fac	0.860	0.255	11.346	0.001	2.362***
	Mar	0.698	0.380	3.377	0.066	2.010*
	Age	0.597	0.362	2.719	0.099	1.816*
	Reg	-0.449	0.308	2.122	0.145	0.638

CI×Inc (통제변수) [가설 2-2]	Fac	0.918	0.254	13.041	0.000	2.503***
	Mar	0.075	0.487	0.024	0.878	1.078
	Age	0.193	0.180	1.150	0.284	1.213
	Reg	0.285	0.161	3.161	0.075	1.330*
PI×Sex (통제변수) [가설 2-3]	Fac	0.152	0.486	0.097	0.755	1.164
	Mar	0.544	0.377	2.086	0.149	1.723
	Age	0.661	0.363	3.318	0.069	1.936*
	Reg	-0.482	0.309	2.425	0.119	0.618
PI×Fre (통제변수) [가설 2-3]	Fac	0.866	0.255	12.014	0.001	2.425***
	Mar	0.619	0.379	2.661	0.103	1.857
	Age	0.560	0.365	2.361	0.124	1.751
	Reg	0.472	0.309	2.326	0.127	0.624
PI×Deg (통제변수) [가설 2-3]	Fac	0.812	0.256	10.058	0.002	2.253***
	Mar	0.790	0.384	4.224	0.040	2.203**
	Age	0.518	0.362	2.041	0.153	1.678
	Reg	-0.445	0.311	2.038	0.153	0.641
PI×Inc (통제변수) [가설 2-3]	Fac	0.900	0.253	12.694	0.000	2.460***
	Mar	0.128	0.491	0.068	0.794	1.137
	Age	0.183	0.181	1.018	0.313	1.201
	Reg	0.252	0.160	2.484	0.115	1.286
II×Sex (통제변수) [가설 2-4]	Fac	0.199	0.489	0.166	0.084	1.224*
	Mar	0.574	0.378	2.310	0.129	1.776
	Age	0.645	0.365	3.115	0.078	1.906*
	Reg	-0.479	0.308	2.442	0.120	0.620
II×Fre (통제변수) [가설 2-4]	Fac	0.887	0.254	12.164	0.000	2.428***
	Mar	0.620	0.378	2.687	0.101	1.858
	Age	0.585	0.364	2.578	0.108	1.795
	Reg	-0.447	0.306	2.123	0.145	0.640
II×Deg (통제변수) [가설 2-4]	Fac	0.873	0.246	12.509	0.000	2.394***
	Mar	0.480	0.344	1.949	0.183	1.617
	Age	0.708	0.330	4.605	0.032	2.030
	Reg	-0.354	0.301	1.386	0.239	0.702
II×Inc (통제변수) [가설 2-4]	Fac	0.920	0.254	13.174	0.000	2.510***
	Mar	0.159	0.487	6.107	0.744	1.172
	Age	0.188	0.180	1.098	0.295	1.207
	Reg	0.261	0.159	2.687	0.101	1.298

***, **, *는 각각 p-value 1%, 5%, 10%의 유의수준

주: 1) 본 연구에서 SPSS의 선형회귀분석을 위해 차이검증을 한 이유는 통계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다중 공선성 제거를 위한 표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SPSS Statics를 사용하였다(허준, 2013)

주: 2) 연구모형에서 β1은 전술한 구동모 (2015)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수평적 집단주의가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분석하여 도출된 결과이다.

주: 3) Exp값을 나타낸 β2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 조절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 조절변수와 독립변수를 곱한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을 나타낸다.

주: 4) 관람객의 소득은 통계적으로 0.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

5. [가설3]의 검정결과: 전시시설에 따른 민화작품 관람동기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민화작품 관람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전시 시설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Whitfield et al. (2014)에 따르면, 전시시설의 접근성 및 특성은 작품관람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시시설 및 서비스 스케이프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전시시설은 관람객을 유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Jin & Weber, 2016). <표 9>는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전시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가설 3]의 검정결과이다. 전시시설에 따른 수평적 집단주의가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가설 3-1]의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의 문화적 성향 중 집단주의적 성향이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민화전시시설에 따라 차이를 의미하는 ($D_{fac} \times HC$) 변수는 유의하지 못했다. 이는 수평적 집단주의는 민화전시시설의 중요도에 따라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민화전시 시설과 별개로 민화작품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이다. 또한 경쟁적 개인주의적 성향이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민화전시 시설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가설 3-2]의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관심변수인($D_{fac} \times CI$) 변수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부 (-)의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가설3-2]는 지지되었다.

[가설 3-3]에서는 개성강조 개인주의가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민화전시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관심변수인 ($D_{fac} \times PI$) 변수는 5% 수준에서 유의한 부 (-)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개성강조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관람객은 민화전시의 시설의 외관에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민화작품 관람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설 3-3]은 지지되었다. [가설 3-4]는 독립적 개인주의적 성향이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민화전시시설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주요 관심변수인 ($D_{fac} \times II$) 변수는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즉, 독립적 개인주의적 성향은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전시시설에 따라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3-4]는 기각되었다. [가설 3]의 검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의 문화적 성향과 민화전시 관람동기의 크기와 전시시설과의 상호작용효과를 볼 때 독립적 개인주의와 수평적 집단주의를 제외하고 부 (-)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화작품을 관람하러 오는 관람객은 전시장의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민화작품이라는 콘텐츠를 관람하러 오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표 9> [가설3]의 검정결과

$$\text{Mot} = \beta_0 + \beta_1\text{HC} + \beta_2(\text{Dfac} \times \text{HC}) + \text{Control} + \varepsilon \dots (\text{가설3-1의 모형})$$

$$\text{Mot} = \beta_0 + \beta_1\text{CI} + \beta_2(\text{Dfac} \times \text{CI}) + \text{Controls} + \varepsilon \dots (\text{가설3-2의 모형})$$

$$\text{Mot} = \beta_0 + \beta_1\text{PI} + \beta_2(\text{Dfac} \times \text{PI}) + \text{Controls} + \varepsilon \dots (\text{가설3-3의 모형})$$

$$\text{Mot} = \beta_0 + \beta_1\text{II} + \beta_2(\text{Dfac} \times \text{II}) + \text{Controls} + \varepsilon \dots (\text{가설3-4의 모형})$$

구분		B	S.E	Waid	p-value	Exp(B)
수평적 집단주의 [가설 3-1]	HC×Fac	0.257	0.312	0.504	0.478	1.293
경쟁적 개인주의 [가설 3-2]	CI×Fac	-0.609	0.319	3.634	0.057	0.544*
개성강조 개인주의 [가설 3-3]	PI×Fac	-0.796	0.321	6.128	0.013	0.451**
독립적 개인주의 [가설 3-4]	II×Fac	-0.447	0.335	1.776	0.183	0.640
수평적 집단주의 [가설 3-1] (통제변수)	Sex	0.033	0.262	0.016	0.900	1.034
	Age	0.136	0.184	0.547	0.460	1.146
	Mar	0.053	0.490	0.012	0.914	1.054
	Fre	-0.004	0.178	0.001	0.980	0.996
	Deg	-0.002	0.198	0.000	0.993	0.998
	Inc	-0.157	0.145	1.178	0.278	1.170
	Reg	0.319	0.163	3.834	0.050	1.376**
경쟁적 개인주의 [가설 3-2] (통제변수)	Sex	0.086	0.262	0.107	0.744	1.048
	Age	0.108	0.183	0.350	0.554	1.157
	Mar	0.203	0.485	0.176	0.675	1.010
	Fre	0.027	0.178	0.023	0.879	0.953
	Deg	0.023	0.197	0.013	0.908	1.004
	Inc	0.152	0.145	1.102	0.204	1.191
	Reg	0.315	0.163	3.702	0.054	1.397*
개성강조 개인주의 [가설 3-3] (통제변수)	Sex	0.047	0.265	0.031	0.859	1.090
	Age	0.146	0.183	0.637	0.425	1.114
	Mar	0.010	0.487	0.000	0.984	1.226
	Fre	-0.048	0.178	0.072	0.789	1.028
	Deg	0.004	0.198	0.000	0.984	1.023
	Inc	0.175	0.146	1.438	0.230	1.164
	Reg	0.334	0.164	4.164	0.041	1.370**
독립적 개인주의 [가설 3-4] (통제변수)	Sex	0.080	0.262	0.092	0.761	1.083
	Age	0.122	0.181	0.455	0.500	1.130
	Mar	0.201	0.483	0.174	0.677	1.223
	Fre	0.014	0.177	0.006	0.938	1.014
	Deg	-0.003	0.200	0.000	0.987	0.997
	Inc	0.147	0.145	1.030	0.310	0.158
	Reg	0.302	0.163	3.440	0.004	1.352***

***, **, *는 각각 p-value 1%, 5%, 10%의 유의수준

주: 1)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시시설 관람동기를 가진 관람객에서는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VI. 연구결과 및 시사점

1. 연구목적에 따른 분석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문화적 성향이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관람객의 교육적 동기 분석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1]의 검정결과에서 수평적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진 관람객이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Exp(B): 4.796, $p=.000$). 이는 이수인(2010)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반영된 한국사회는 여전히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가설 1-2]의 검정결과에서 경쟁적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관람객의 경우,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Exp(B): 1.674, $p=.006$). 이는 Triendis (1995)가 주장한 바와 같이 경쟁적 개인주의적 성향은 개인의 목표를 우선시한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즉, 경쟁적 개인주의적 성향의 관람객에게 나타나는 민화작품 관람동기는 민화 작품을 통해 경쟁적 지위를 가지려 민화작품을 관람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가설1-3]에서는 개성강조 개인주의적 성향이 나타난다면,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검정결과, 개성강조 개인주의적 성향의 관람객은 민화작품 관람 확률이 2.208배 더 높게 나타났다(Exp(B): 2.208, $p=.012$). 즉, 자신의 독특한 특성을 추구하는 개성강조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최인재(2006)의 연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 독립적 개인주의는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인재(2006)가 주장한 바와 같이, 개성강조 개인주의적 성향과 독립적 개인주의 성향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의견과는 다소 다르다.

둘째, [가설 2]의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관람객은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민화작품 관람동기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남성인 수평적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진 관람객에게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작게 나타났으며, 또한 대학원 재학 이상인 경우에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또한 작게 나타났다. 이는 미루어 보아 대학생 및 10대 관람객은 민화작품을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추정하거나 시대상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즉, 민화작품 관람을 하면서 미술사 등 민화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학문적인 목적이 반영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경쟁적, 독립적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관람객은 소득이 일정수준이상인 경우에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더 크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성강조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관람객은 연간 전시 관람빈도가 높은 관람객일수록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처음 민화 작품을 관람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민화작품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가설 3]의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쟁적, 개성강조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관람객 중 민화 전시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 관람객의 경우,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관람객이 민화전시를 관람하려 올 때 전시시설에 대한 외관적 시선보다 민화작품에 집중하려 함을 시사하고 있기에 전시기획자 및 큐레이터는 관람객을 유치할 때 민화작품과 관련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관람객을 효율적으로 유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연구범위에 따른 학문적 시사점과 교육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된 학문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문화적 성향은 삶의 주요 영역이며 여가활동과 연결되기에, 임영규(2009)에 따라 향후 개인의 문화적 성향을 문화예술 분야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성향에 따라 민화작품 관람동기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에 문화예술분야의 특성에 맞는 문화적 성향의 척도를 개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둘째, 문화예술 관람동기와 관람객의 학력 및 관람빈도 간의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관람빈도는 관람객의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정지은·김정아(2017)에 따르면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관람객의 동기가 달라질 수 있기에 소득 및 학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민화작품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다면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 관람객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민화작품 관람객은 민화작품 관람동기와 전시 시설 관람 동기를 별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시장 내의 휴식공간(카페 및 부대시설) 및 전시장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작품 관람동기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민화전시시설과 민화작품은 별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 문화예술 서비스를 통해 더 나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 정서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강문실·김윤숙, 2021).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민화작품 관람동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시기획자는 동료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이나 자신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민화작품의 미술사조를 효과적으로 알릴 뿐 아니라 민화작품을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민화에는 교육적 특성이 반영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민화작품 관람동기의 의미를 교육적 요인으로 측정하였다. 하지만 민화전시의 교육적 요인은 다양한 독립변수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민화작품 자체의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교육적 관점에서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을 타깃으로 하는 미술관 교육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SNS에 익숙한 20대에게 인증샷을 통해 미술교육을 홍보하도록 유도하며, 장년층에게는 기획자와의 만남 등의 전시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민화작품을 통한 미술교육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민화전시시설과 민화작품 관람동기는 작품 관람객을 유치하는 전략에 있어 각각의 역할이 따로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전시기획자가 전시시설에 따른 동기와 전시작품을 통한 교육적 동기를 개별적으로 제시할 경우, 관람객은 민화작품의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지나친 전시시설에 대한 강조보다는 작품과 관련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람객의 지적동기를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본 연구의 실무적 교육의 지향점이 다양하게 제시될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문화적 성향을 해외 및 국내문헌을 통해 정의하였지만 문화적 성향을 민화전시의 특성에 맞게 실무적으로 재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향후에는 민화전시를 관람하려는 사람들의 포괄적 문화적 성향을 통해 실무교육의 변수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화전시 관람동기에는 홍보수단(SNS), 취미생활, 교류동기 등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작품적 특성 및 지적동기, 그리고 민화전시시설로 제한했다는 점이다. 향후에는 작품의 실무교육적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많은 관람동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민화작품 관람동기와 교육적 요인을 분석하였지만 향후에는 교육적 부문에 있어서 전문가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전시시설 요인과 민화의 실무교육적 요인을 민화작품의 성격에 맞게 포괄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민화작품 관람동기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20대 관람객과 최종학력이 다소 편중되어 있다.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8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라 미술 전시회 분야 관람객은 20대 관람객이 제일 높다는 결과와 유사하지만(문화체육관광부, 2019), 표본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결과의 오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경영 분야에서 민화 작품의 특수성과 특성, 그리고 미술사적 의미를 가지고 경영학 분야와 융합함으로써 미술작품의 가치를 통해 실제 관람객을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창대·노용숙(2020)의 연구에서와 같이 실무적인 사례연구 및 현장중심의 후속연구를 통해 기업의 성과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본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적 문제는 모두 저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문실·김윤숙, “관광서비스 산업의 기업과 정신과 혁신행동과의 관계에서 신뢰의 조절효과”, 「상업교육연구」, 제 34권 2호, 2020, pp.73-95
- 강문실·김윤숙, “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소명의식과 조직몰입,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신뢰의 매개효과”, 「상업교육연구」, 제 35권 4호, 2021, pp.103-124.
- 고종석·강경목, “사회적 태만에 대한 조직 갈등의 영향력, 감성지능 및 문화적 성향과의 구조적 관계”, 「산업경제연구」, 제 31권 2호, 2018, pp.475-496.
- 구동모, 「SPSS, LISREL, PLS 및 Process를 활용한 기초, 조절,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학현사, 2015.
- 강병서·김계수, 「SPSS17.0 사회과학 통계분석」, 한나래아카데미, 2009.
- 김두이·김상훈, “예술적 단서와 친 사회적 태도: 창의성의 매개효과 및 모순적 심상과 자아 온전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제25권 4호, 2014, pp. 153-180.
- 김미경·조덕영·김윤진, “외국인의 문화적 특성이 국가 이미지, 한국의료서비스 이미지와 한국의료서비스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인, 러시아인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1호, 2016, pp.595-610.
- 김선미·김종열·최민철, “연극관람요인이 관람만족과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논총」, 32호, 2011, pp.23-38.
- 김선우·김난도, “한국, 미국, 스웨덴의 문화적 성향과 기부행동 비교”, 「소비문화연구」, 제 13권 1호, 2010, pp.61-80.
- 김세범·박유식·이승희·장형유·허남일, 「최신 소비자 행동」, 명경사, 2011.
- 김순귀·정동빈·박영술, 「SPSS를 활용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이해와 응용」, 한나래출판사, 2012.
- 김연선, “관광객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와 재방문 의도에 관한 차이분석 연구”, 「관광연구저널」, 제31 권 7호, 2017, pp. 55-66.
- 김윤식·정승환, “축제방문객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축제정보원천과 방문동기의 차이: 안산 국제거리극축제를 중심으로”, 「호텔관광연구」, 제46권, 2012, pp.240-253.
- 김홍렬·한진영, “IPA분석을 이용한 전시회 참가업체의 참가결정요인과 참가성과 연구”, 「MICE관광연구」, 제30권, 2012, pp.85-100.
- 류숙희, “인구 통계적 요인에 따른 의복 구매 성향 및 의복 사용 조사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11권 2호, 2003, pp.320-330.
- 문승태·김선애, “도시민의 농촌생활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 43권 2호, 2011, pp 75-93.
-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문화향수 실태조사 보고서」, 2017.
-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문화향수 실태조사 보고서」, 2019.
- 박경환, “호프스테드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 교수와 대학생의 문화인식에 관한 비교 연구”, 「국제경영리

- 류», 제5권 2호, 2001, pp.159-188.
- 박광희·최원경,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적 가치 성향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제12권 1호, 2001, pp.101-114.
- 방수아·김소영, “실버 소비자의 공연 관람 유형화 및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논총」, 제26권 1호, 2012, pp.73-97.
- 배수연, “전북지역 공연예술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략”, 「한국자치행정학보」, 제 20권 2호, 2006, pp.100-122.
- 서정화, 「공연관람객의 유형화와 유형변화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성재환, “문화 소비자본이 문화·예술상품 수요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문화경제연구」, 제 15권 1호, 2012, pp.67-93.
- 소병희,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 - 문화예술 향수 증대를 위한 정책 제언”, 「문화정책논총」, 20권, 2008, pp.106-125.
- 신형덕·김태황·김명수·김영석, “미술품 가격 추정에 있어서의 예술적 가치의 의의: 경매와 비경매 시장의 비교”,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3권 10호, 2012, pp.4432-4439.
- 신회건·남호수, “로짓모형을 적용한 학생 맞춤형 예방상담지원 서포트지수 개발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학회지」, 제30권 2호, 2019, pp.323-333.
- 오현숙·박남기·강내원, “개인의 문화적 성향과 사회규범이 불법 다운로드 의도에 미치는 영향-한국대학생과 중국인 유학생 비교”, 「언론과학연구」, 제13권 4호, 2013, pp.343-378.
- 원태연·정성원, 「SPSS(PASW Statics 18.0) 통계조사분석」, 한나래출판사, 2010.
- 유창·이태희, “Plog 성격이론에 근거한 관광동기와 관광지 선택속성 차이분석-주한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제31권 6호, 2017, pp.5-19.
- 이수인, “집단주의 형성 요인과 과정, 성별차이에 대한 연구 - 수평적-수직적 집단주의에 대한 가족 및 학교경험의 효과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88권, 2010, pp.256-375.
- 이영두, 「예술경영」, 세종출판사, 2003.
- 이유경, “중국소비자의 문화성향이 SNS 구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국제지역학회」, 제15권 3호, 2011, pp.493-511.
- 이용관·김혜인, “연령별 사회관계망과 문화관람 활동의 관계분석”,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3호, 2015, pp.77-100.
- 이인성·최지웅·김소령·이기호·김진우,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 수준의 문화적 성향이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 미국, 독일, 러시아의 4개 디지털기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제 19권 1호, 2009, pp.113-145.
- 이인성·최지웅·김소령·김진우, “사용 대상에 따른 개인 사용자의 문화적 성향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HCI학회논문지」, 제7권 2호, 2012, pp.1-10.
- 이은우, “문화예술 상품수요의 결정요인 분석”, 「문화산업연구」, 제16권 2호, 2016, pp.69-78.

- 이태숙·김철원, “컨벤션 개최 목적에 따른 회의유형별 컨벤션 참가자의 선택속성 및 만족도에 관한 인식 차이 연구”, 「관광연구」, 제24권 5호, 2009, pp.85-105.
- 이창대·노용숙, “마을기업의 기업가정신과 조직역량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제 34권 1호, 2020, pp.115-147
- 이효정·김장환·최명수, “문화적 가치성향에 따른 지역애착도와 프로스포츠팀 동일시 및 충성도의 관계”, 「전국체육대회기념」, 2009, p. 250.
- 임영규, “문화적 성향, 여가활동 유형, 생활만족도 간의 인과적 관련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28권 1호, 2009, pp.263-287.
- 장문정·우형진,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온라인 콘텐츠 불법다운로드 행위의도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4권 3호, 2010, pp.54-76.
- 정미란·고재윤, “문화적 가치가 와인구매동기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Hofstede 이론의 적용”, 「관광레저연구」, 제22권 5호, 2010, pp.243-261.
- 정선희, 「민화활용을 통한 박물관 운영 활성화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정지은·김정아, “호텔뷔페레스토랑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선택속성, 만족도 및 추천의도간의 영향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 29권 9호, 2017, pp.165-184.
- 조예진, “문화공연 관람요인이 공연관람의도 및 관람만족에 미치는 영향”, 「문화산업연구」, 제15권 4호, 2015, pp.1-12.
- 조현우, “행실도 열년편 도상 변화의 문화적 의미”,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50호, pp. 333-357.
- 주미정·이재식, “문화성향과 분석적-종합적 사고유형의 조합에 따른 전역/국소처리에서의 차이”, 「인지과학」, 제23권 2호, 2012, pp.269-293.
- 지순임, “한국민화의 예술적 가치 연구”, 「한국미학예술학회지」, 24호, 2006, pp.191-225.
- 최열·김상현·이재송, “로짓모형을 이용한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부담능력 결정요인 분석 부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부동산학보」, 59호, 2014, pp.45-58.
- 최인숙·남용현, “민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의 기능적 역할에 관한 연구-민화의 유형별 상징성을 중심으로”,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24호, 2010, pp.65-74.
- 최인재,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고찰”, 「상담학연구」, 제7권 3호, 2006, pp.761-773.
- 표정민, 「한국인의 문화적 성향과 창의성 평가: 문화적 성향 잠재집단에 따른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그리고 자기 및 타인평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표정민·최인수, “한국인의 문화적 성향 잠재집단 따른 창의성 평가의 차이 - 암묵적 이론을 이용한 자기 평가 및 타인(한국인/외국인) 평가”, 「한국심리학회지」, 제34권 1호, 2015, pp.27-55.
- 한규석·신수진,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 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집단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3권 2호 1999, pp.293-310.
- 한동유·강현욱·박형란, “남녀 대학생의 개인/집단주의와 팀 스포츠 관람동기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15권 2호, 2010, pp.225-238.
- 한상만·곽영식, “2단계결합분석과 Logit Model 을 이용한 시장경쟁구조분석”, 「경영학연구」, 제26권 3

- 호, 1997, pp.567-595.
- 한상필, “개인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 한국과 미국광고에 나타난 문화적 차이에 대한 비교연구”, 「광고연구」, 1990, pp.225-251.
- 홍세희, 「이항 및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교육과학사, 2005.
- 홍미영 · 김정매 · 이형룡, “해외전시회 참가자의 재참가의사 결정요인 - 참가동기 및 여행 상품선택속성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제22권 6호, 2009, pp.3509-3527.
- 홍윤미 · 이명우 · 윤기웅, “문화예술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GRI연구논총」, 제17권 1호 2015. pp.185-211.
- 허준, 「허준의 쉽게따라하는 Amos 구조방정식모형」, 한나래출판사, 2013.
- Agresti, A., An Introduction to Categorical Data Analysi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A Wiley Interscience Publication, 1996.
- Alcaraz, C., M. Hume, & M. G. Sullivan, “Creating sustainable practice in a museum context: Adopting service centricity in non-profit museums”, Australasia, Marketing Journal, Vol.17, No.4, (2009), pp.219-225.
- Aldao, C., & T. A. Mihalic, “New Frontiers in Travel Motivation and Social Media: The Case of Longyearbyen, the High Arctic.” Sustainability, Vol. 12, No. 15, (2020), pp.1-19.
- Baron, R. M. &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 6, (1986), pp.1173-1182.
- Bitner, M. J., “Servicescapes: the impact of physical surroundings on customers and employees”, Journal of marketing, Vol.56, No.2, (1992), pp.57-71.
- Cahoon, D. R., J. C. Lynch & A. N. Powell, “Marsh vertical accretion in a southern California estuary, USA. estuarine”, Coastal and Shelf Science, Vol.43, No.1, (1996), pp.19-32.
- Choi, B., I. Lee, & J. Kim, “Culturability in mobile data services: A qualitativ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user-experience attribute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Vol.20, No.3, (2006), pp.171-203.
- Cohen, A. B. & M. E. Varnum, “Beyond East vs. West: social class, region, and religion as forms of culture”,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Vol.8, (2016) pp.5-9.
- Cohen, J., P. Cohen, S. G. West, & L.S. Aiken,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Routledge, 2013.
- Deery, M. & L. K. Jago, Delivering innovation, knowledge and performance :the role of business events, Monograph, 2010.
- Fefer, J. P., J. C. Hallo, R. H. Collins, E. D. Baldwin & M. T. Brownlee, “From Displaced to Mislplaced: Exploring the Experience of Visitors Who Were ‘Crowded Out’ of Their Recreation Destination.”, Leisure Sciences, (2021), pp.1-20.

- Fishbein, M., H. C. Triandis, F. H. Kanfer, M. Becke, & S. E. Middlestadt, Factors influencing behavior and behavior change, 2000.
- Person, E. S., The force of fantasy: Its roles, its benefits and what it reveals about our lives. Harper Collins, 1997.
- Ponsignon, F., R. Lunardo and M. Michrafy, "Why Are International Visitors More Satisfied with the Tourism Experience? The Role of Hedonic Value, Escapism, and Psychic Distance."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0, No. 0, (2020), pp.1-16
- Grappi, S. & F. Montanari, "The role of social identification and hedonism in affecting tourist re-patronizing behaviours: The case of an Italian festival", Tourism Management. Vol.32, No.5, (2011), pp.1128-1140.
- Henry, A., Consumer behavior (A Strategic approach), Dreamtech Press, 2005, pp. 11-673.
- Hofstede, G., "Culture and organizations",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and organization, Vol.10, No.4, (1980), pp.15-41.
- Hofstede, G., Empirical models of cultural difference, 1991.
- Huang, S., "A study on the motivation of APEC volunteer and Its relationship with job satisfaction", Journal of Service Science and Management, Vol.10, No.6, (2017), p. 587.
- Jin, X. & K. Weber, "Exhibition destination attractiveness -organizers' and visitors' perspec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 Vol.28, No.12, (2016), pp.2795-2819.
- Katsikari, C., L. Hatzithomas., T. Fotiadis., and D. Folinis, "Push and Pull Travel Motivation: Segmentation of the Greek Market for Social Media Marketing in Tourism." Sustainability, Vol. 12, No. 11, (2020), p. 4770
- Markus, H. R. & M. G. Hamedani, Sociocultural Psychology: The Dynamic Independence among Self Systems and Social Systems, Handbook of Cultural Psycholog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07.
- McFadden, D. L., Conditional Logit Analysis of Qualitative Choice Behavior, in Frontiers in Econometrics, P. Zarembka(ed.), NY Academic Press, 1973, pp.105-142.
- Nafiseh, R., R. Mirzaei & R. Abbasi, "Study on motivation differences among traditional festival visitors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se study: Gol-Ghaltan festival, Iran", Journal of Convention and Event Tourism, Vol.19, No.2, (2017), pp.120-137.
- Nelson, R. R., Current issues in convention and exhibition facility development, Routledge, 2013
- Triandis, H. C., "The psychological measurement of cultural syndromes", American psychologist, Vol.51, No.4, (1996), p. 407.
- Triandis, H. C.,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Vol.69, No.6, (2001), pp.907-924.

- Triandis, H. C., Collectivism v. individualism: A reconceptualisation of a basic concept in cross-cultural social psychology, In Cross-cultural studies of personality, attitudes and cognition Palgrave Macmillan, London, (1988), pp.60-95.
- Triandis, H. C., C. McCusker & C. H. Hui, "Multimethod prob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9 No.5, (1990), p. 1006.
- Schwartz, S. H., "Individualism-collectivism: Critique and proposed refinem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21, No.2, (1990), pp.139-157.
- Singelis, T. M., H. C. Triandis., D. P. Bhawuk., & M. J. Gelfand,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Vol.29, No.3, (1995), pp.240-275
- Sirgy, M. J. & C. Su, "Destination image, self-congruity, and ravel behavior: Toward an integrative model",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38, No.4, (2000), pp.340-352.
- Wang, Y., B. Moyle, M. Whitford & P. W. Moylan,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in the exhibition industry in China: an exploration into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and inhibitors", Journal of China Tourism Research, Vol.10, No.1, (2014), pp.292-322.
- Whitfield, J., L. Dioko., A. N., Webber & L. Zhang, "Attracting convention and exhibition attendance to complex MICE venues :emerging data from Macao",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16 No. 2, (2014), pp.169-179
- Xiaoli, Y, F. Xiao, W. Jin, & F. Okumus, "Constructing a model of exhibition attachment: Motivation, attachment, and loyalty", Tourism management, Vol.65, (2018), pp.224-236.

Abstract

Relationships between Cultural Disposition and the Motivation of Folk Paintings : Educational Implic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Folk Paintings*

So, Eunhye** · Na, Young***

This study proposes educational implications through the motivation for viewing folk tale exhibitions among the fields of culture and art that contribute to social welfare. Despite culture and arts contribute to social welfare, research on the effects and contents of arts in the field of business administration is very limited,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limited. In this study, how the Cultural Disposition consider the educational characteristics of folk paintings. Moreov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influence of the Cultural Disposition the audienc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size of the motivation for folk paintings according to the exhibition facilities Analyzed through logit regression. The motivation for viewing folk paintings was measured according to the importance scor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 evaluated by experts.

The summary of results is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motivation for folk paintings increased according to the Cultural Disposition. Second, the motivation for folk paintings was partially different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ird, if the motive for considering the facility is large, the motive for viewing the work decreases. This study shows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First, viewers with horizontal tendencies consider the meaning of the work. Second, if folk paintings by the Cultural Disposition and demographic of individuals who come to view folk paintings, the motivation for viewing folk paintings will increase. Third, if the exhibition provides the motive for viewing the facility to the visitors, the motive for viewing the artwork is rather reduced. Despite the above implications, that it is proposed as a characteristic of the work and an exhibition facility to define educational implications. Therefore, in future research, when defining the practical educational

[Received August 20, 2021, Revised October 17, 2021, Accepted October 26, 2021]

* This Paper is written by overall revising and supplementing part of the First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 1st author, Adjunct Professor, Event Management, Korea University of Media Arts.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of Business and Economics, ChungAng University.

part of the exhibition, it needs to be comprehensively reorganized to fit more diverse exhibition facilities and characteristics.

Keywords : Cultural Disposition, Motivation of Folk Paintings, Educational implication